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로 평양승실대학장과 독립된 최초 한국장로교 의장을 역임했으며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출생한 사무엘 후 마펫 박사와 부인 아이린 마펫 박사를 만나보았다. 프린스턴신학원 교수를 은퇴한 마펫 박사 부부는 아직도 한국을 영적 고향으로 생각하며 최근에는 한인인간자를 위한 프린스턴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돕고 있다. 서울대와 뉴브런스윅, 장로회신대원을 졸업하고 현재 포도나무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박현숙 목사가 객원기자로 마펫 목사 부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편집자 주)

세월은 지나도 예수로 이어진다

한국에서 출생한 사무엘 후 마펫 박사와 부인 아이린 마펫 여사를 만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은혜였다. 마펫 박사는 프린스턴 신학원에서 미션과 에큐메니즘의 켈리루스 교수로 은퇴한 분으로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사였던 사무엘 오스틴 마펫(마포삼열)목사의 아들이다.

마펫 박사 부부를 만난 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은혜였다. 부친인 마펫 선교사는 118년 전 자신의 생일인 1월 15일,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후 한국 최초의 장기 선교사로 46년이라는 긴 생애를 평양에서 보냈다. 1901년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마포삼열 목사는 1936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탄압에 불복, 폐교령을 내리고 암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임시 미국으로 왔으나 다시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3년 후 캘리포니아의 몬로비아에서 소천하였다. 67년이 지난 후 그의 유해는 장신대의 105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비로소 캠퍼스 묘지에 안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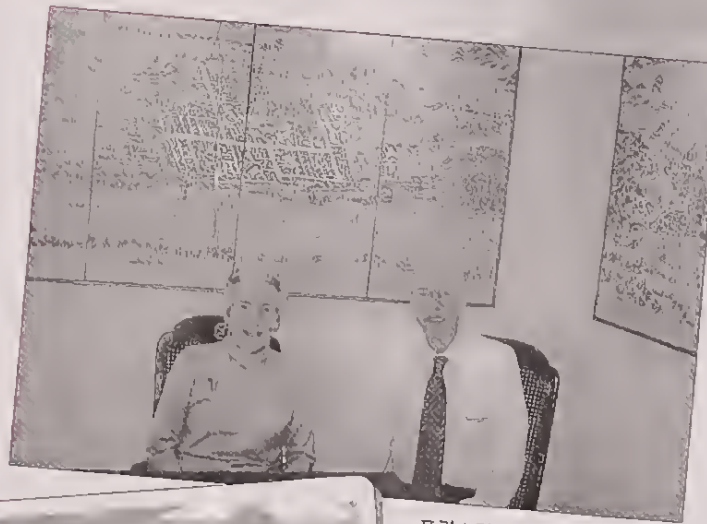
마펫 박사는 부친에 대해 “그분은 철저히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는 복음 중심적이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열정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가장 좋아 하셨지요”라고 회고했다. 마펫 박사의 다이닝룸에는 아주 한국적이고 운치 있는 병풍이 걸려 있었는데 호리호리한 키의 마펫 박사는 약간 휘청거리는 듯한 걸음걸이로 필자를 안내하며 병풍 속의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여기가 모란봉입니다. 여

기가 대동강이고요, 여기가 보통문, 여기가 평양의 보통강이지요. 이 거리가 바로 제 부친이 돌을 맞으셨던 곳입니다.” 120여 년 전, 극동의 미개하고 위험한 오지의 나라에 와서 주님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가슴 하나로 조선 땅을 걸었다. 한 백안의 청년이 바로 평양시 이 거리에서 돌을 맞고 피를 흘렸다는 선명한 설명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제 부친이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꽃다발과 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과 말 사이에는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참된 가치의 무게가 주는 경건함이 진실되게 실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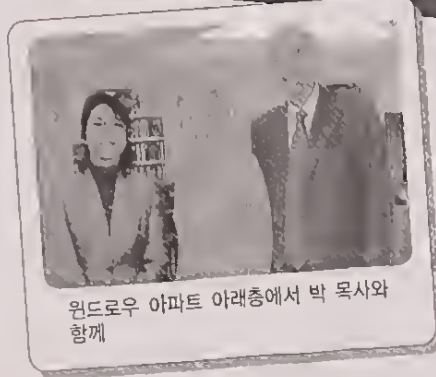
마포삼열 선교사는 거리의 사도였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평양에 와서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험곡도 마다 않고 늘 걸고 걸었다. 그는 환난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랑의 사도였다. 그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혔던 ‘깡패 이기풍’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의 응성을 듣고 회심하여 한국 최초 7인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평양을 떠날 때 평양은 천 여개의 교회가 있고 800여 명의 신학생을 배출한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으니 그 놀라운 복음의 결실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헌신적이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맺힌 전도의 열매였다.

마펫 박사는 1916년에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18세까지 살았다. 1934년 미국으로 와서 휘튼과 프린스턴에서 수학하고 예일에서 Ph.D를 받고 아내와 함께 중국선교사로 4년간 사역한 후 미국으로



프린스턴 윈드로우 자택 벽에 걸려있는 평양시 지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마펫 목사 부부



윈드로우 아파트 아래층에서 박 목사와 함께

프린스턴 교수 은퇴 후 한인센터 건립 지원
마포삼열 선교사의 섬김이 아들에게 이어져

돌아와있던 중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 1955년 다시 ‘나의 고향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태어난 고향인 북녘은 갈 수 없지만 나에게 한국은 어느 쪽도 기꺼운 고향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다음 해인 1956년 서울 연동교회에서 프린스턴 신학원을 졸업한 아이린 플라워(한국명 애린)와 결혼하였다. 아이린 여사는 안동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성경 구약부 운동이 1981년 한국을 떠날 때는 전국에 5만 여명의 규모로 성장했고 많은 주의 종들도 배출되었다. 마펫 박사는 부친이 세운 장신대에서 기독교사를 강의하다가 아시아 기독교사로 전업화 시켰으며 초대 신학원 총재가 되었고 아시아 신학 연구센터(ACTS)를 협동해 창립했다.

마펫 박사의 아파트는 아름다운 한국의 그림과 사진들, 비단장식과 한국의 마지막 왕비인 민비의 대례복의 재단 등으로 은뿔 채워져 있었다. 한국 기독교사의 권위자이기도 한 마펫 박사는 ‘한국의 기독교인’ (1962)이라는 책과 ‘아시아의 기독교 역사’ 1, 2권을 출판한 바 있다. 최근 마펫 박사 부부는 프린스턴 커뮤니티 센터(KCCP) 건립 기금을 기부했는데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 살며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한인들로서의 정체성을 보존 하기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KCCP는 한인 가족들에게 이민 문화권 안에서 가치 있는 모국의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누구보다도 한국이라는 단일 문화권에서 한국인 아닌 한국인, 외국인 아닌 외국인으로 오랜 세월 살아온 분으로서의 체험적인 고견이리라. 슬하에 자녀들 없이 주의 자녀들만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평생 믿음의 자녀들 양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들의 순수한 정열이 이 분들의 맑은 눈빛만큼이나 고왔다.

어떻게 진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하자 그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 주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라고 대답한 그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간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날 분규에 끌어넣는군요(웃음) 한국 교회의 장점으로는 집중적인 성경 공부와 개인 기도생활, 십일조, 세계 선교에의 열심, 사역자뿐만이 아닌 남녀 평신도들의 복음전파의 열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약점은 교계의 분립인데 한국 교회의 분립은 미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열 후 양쪽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분열 후 양쪽이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만큼이나 센스가 있는 아이린 여사는 명랑하게 미소 지으며 마펫 박사의 붉은 베타이를 가리켰다. “이 베타이는 장신대의 베타인데 그는 항상 이 베타이를 자랑스러워하지요” 마펫 박사는 회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부친이 태어나셨을 때는 링컨 대통령이 1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지만 1901년 이래 장신대는 늘 제 부친의 고향이었습니다. 부친은 선교사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기에 그러셨는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다섯 형제 중 네 명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펫 박사 내외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나왔을 때 하늘은 더욱 청명한 빛으로 혼풍 속에 화사한데 외국 오지의 길 위에 선 한 흉안의 청년이 떨어뜨리는 선혈의 씨앗하나가 계속해서 필자의 마음 밭에 떨어지고 있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이 거친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과 소망의 영으로 가슴이 훈훈해움을 느끼며 마펫 박사 부부의 집을 나섰다.

hyunparkinchrist@yahoo.com